

월요객석



류권홍

원광대학교 교수
(HK+ 동북아시아인문
사회연구소장)

폭등하는 국제유가

약 150원으로 약 10% 올랐다. 운송업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국제유가의 상승이 OPEC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라고 요구했다. 올바른 주장일까? 유가라는 것이 일반 상품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고도의 정치적 재화라는 것은 오래전에 일반상식 정도의 지식이 됐다.

그러면서도 유가변동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경제법칙에 의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2014년 6월 배럴당 \$112이던 국제유가가 그 이후로 2017년 8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낮은 국제유가는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게 하거나 연기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벌써 3년 넘는 기간 동안 상류에 대한 투자가 감축된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원유 판매 수입이 자국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유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가 상승기에는 증산을 꺼리게 된다. 2017년에 2018년의 예산을 수립하면서 예상재정수입을 2017년의 유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2018년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니 필요한 재정수입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보됐다. 즉, 석유를 더 생산해서 팔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오히려 감산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지게 된다. 그들에게 석유는 생명줄인데, 생명줄이 빨리 고갈되기를 원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증산 압박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라크의 주장이 산유국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촉발시킨 사람이 바로 트

럼프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합의를 파기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게 되면서 국제 석유시장에서 공급측면에 큰 충격을 준 것이다. 주된 원인이자 남의 탓하는 꼴이다.

한편, 미국이 셰일석유를 증산하면 되면 유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한 생각이다. 그들도 사업가라서 저유가를 싫어한다. 유가가 폭락할 정도로 생산량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내의 송유관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당장 국제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등이 원유 수출량을 늘리면 국제 원유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라는 자국의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 당장 증산이 어려운 처지다.

유가의 변동에 따라 어렵게 벌어들인 달러를 쉽게 내줘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과 정치권에 하고 싶다.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라는 단어로 뒷방에 가둬놔야 하는지도 묻고 싶다.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원유를 들여오지 않더라도 비싸게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인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원사업처럼 수익이 큰 사업은 지구상에 없다. 신발 끈을 다시 조일 때가 되었다.

프로필 ▲1970년 출생 ▲한양대 법학과 졸업 ▲인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외자원개발협회, 해외자원개발 정책연구회 회장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위원

社 說

규제 개혁과 갑질문화 근절나선 정부

정부가 규제개선과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갑질 문화 근절에 나선 것은 우리 사회 및 산업계 전반에 한발 성장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만하다. 4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전기공사업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정책에 대해 꼼꼼히 의견을 청취해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벌였다. 이날 나온 얘기를 보면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기조 속에서 전기공사업계가 태양광 분야에서 겪는 걸림돌에 대해 전달했다.

정부가 3020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 탓에 여러 규제들이 시장이 성장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물품으로 분류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구매를 하고 특히 직접생산 확인증서 발급 기업만 입찰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장이 없는 전기공사업체들은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또 지자체별로 다른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도 대표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규제도 논의됐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기준이 들쭉날쭉 한다면 정부가 만든 제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전기시공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등 전기시공업계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날 간담회와 특별한 정책을 만드는 특별

한 프로세스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현상 사람들의 입이 아닌 윗 사람의 입에 의존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책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엄청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지불한다. 대표적으로 31조원이 든 4대강 사업도 현상이 아닌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된 탁상행정의 표본일 것이다. 탁상행정 못지 않게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도 근절의 대상이다. 갑질은 사회양극화는 물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 적폐다.

정부는 공공분야 불공정한 갑질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6단계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차원에서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갑질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은 사태의 심각성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재벌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얼마나 갑질문화가 만연해 있으며, 또 음모적으로 썩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벌을 정점으로 충족하도급으로 연결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압축성장이란 과실을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은 말 못할 서러움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갑질 문화를 바로 잡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수십년 쌓아온 적폐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은 금물이다. 정부의 말처럼 민간의 갑질은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거쳐야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란 어두운 단어가 사라질 수 있다.

경제산책

괜히 길게 느껴지던 6월이 지났다. 겨우 달력 한페이지를 넘겨 7자가 보일 뿐인데, 웬지 마음이 실린다.

불쾌한 여름 날씨와 바쁜 업무에 치이며 얼굴을 찌푸리던 직장인들을 웃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단어 '여름휴가'. 드디어 여름 휴가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기자는 얼마 전 회사에 휴가계획을 냈다. 아직 날씨가 한참 남았음에도 입가를 설룩하게 했다.

물론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교통편이나 숙소 등도 예약을 마무리했겠지만 말이다.

날짜를 정했으니, 이제 어디 가서 무얼 할까 하는 선택이 남았다.

근데 막한다. 일단 휴양지로 가겠다는 생각

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하려니 이게 쉽지 않았다.

국내로 가려니, 휴가철 잔뜩 오른 물가에 괜히 손해 보는 기분이다. 해외는 국내처럼 바가지 쓰는 기분은 아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비싸고, 또 멀다. 이제 기어 다니는 팔아이가 비행기에서 버틸 수 있을까, 다른 승객들에게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물론 기자 본인 은 아니고, 집사람이. 휴가 고민이 끝난 후 지난 2주를 가만히 돌켜봐왔다. 겨우 이런 고민을 왜 그렇게 오래 끌어왔나.

결론은 머니(Money). 뭐니 뭐니 해도 머니, 결국 돈이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 행복을 누리려고 했다. 이른바 효율적인 소비를 위한 고

민이었던 것이다.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스마트 컨슈머(Smart Consumer)'가 되기 위한 도전이었다고 감히 자랑하고 싶다.

물론 과정은 별로 스마트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한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두고 굳이 입소문을 찾았으니. 그래도 내년에는 더 똑똑한 선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지위해본다.

김병일 기자 kube@

휴가, 스마트 컨슈머에 대한 단상

민폐는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된다. 재충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부풀었던 가슴은 고구마를 삼킨 듯 답답해졌다.

결국 사람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제일 먼저 휴가 어디 가냐고 묻기 시작했다.

상대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고, 부러워도 하면서 조금씩 정보를 수집했다. 어디가 좋더라. 어디가 싸더라. 이런 얘기들.

무에이즈라는 별명까지 붙어 금정산에서 못잡으면 전국의 소나무가 전멸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 다음해 봄부터 고사한 소나무를 색출해 소각하고 항공방제를 시행했다. 이후 금정산 일원에 10년간 항공방제를 했지만, 4.5년 지나 할안.진주 등에서 발생하다가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당시 박멸한다는 목표 하에 생태계파괴를 각오하고 항공방제를 했던 것인데 이미 재선충의 박멸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항공방제는 소탐대실이다. 띄엄띄엄 나타나는 광범위한 피해지역 중에서 집중적인 피해지역에만 항공방제 구역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수밖에 없고 방제 후의 방제효과를 검증할 수도 없다. 3cm나 되는 딱딱한 등껍질을 가진 솔수염하늘소를 죽

독자기고

필자는 작년 5월 9일 동아일보 독자투고를 비롯, 부산 지역언론에 생태계 파괴하는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금년 봄 산림청의 발표에 의하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을 제외하고 전국 29개 시군구 5,061ha에 소나무재선충을 박멸하기 위해 항공방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미 재선충 피해가 전국에 확산돼 박멸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생태계만 파괴하고 효과는 미미한 항공방제를 고집하는 산림청의 전례답습적 무사안일 행정이 답답하다.

1988년 10월 부산 금정산에서 아름답디 소나무가 집단으로 고사해 산림청 임업연구원

및 식물검역소가 합동조사한 결과 소나무재선충 피해로 확인됐다. 일본에서 소나무 포장재가 부산항을 들어올 때 소나무재 속에 있던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봄에 탈출해 금정산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재선충을 감

목속에 있던 재선충이 소나무 속으로 들어가 급속히 번식해 물공급을 막아 소나무를 고사시킨다.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솔수염하늘소 애벌레가 소나무재 속에 들어가 월동할 때 고사한 소나무를 소각하거나 늦봄에 소

나무에서 탈출해 날아다니는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을 항공방제로 잡는다.

1988년 10월 첫 피해 확인 후 전국적으로 항구 주변과 산림을 정밀조사한 결과 피해는 부산 금정산 일대에 한정돼 있다고 판단하고 소나무재선충 박멸 10개년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일단 감염되면 100% 고사하므로 소나

무에이즈라는 별명까지 붙어 금정산에서 못잡으면 전국의 소나무가 전멸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 다음해 봄부터 고사한 소나무를 색출해 소각하고 항공방제를 시행했다. 이후 금정산 일원에 10년간 항공방제를 했지만, 4.5년 지나 할안.진주 등에서 발생하다가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당시 박멸한다는 목표 하에 생태계파괴를 각오하고 항공방제를 했던 것인데 이미 재선충의 박멸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항공방제는 소탐대실이다. 띄엄띄엄 나타나는 광범위한 피해지역 중에서 집중적인 피해지역에만 항공방제 구역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수밖에 없고 방제 후의 방제효과를 검증할 수도 없다. 3cm나 되는 딱딱한 등껍질을 가진 솔수염하늘소를 죽

이는 약제는 나비, 잠자리, 벌 등 많은 다른 곤충도 죽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리고 당초 금정산의 소나무재선충을 박멸하지 못하면, 피해가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소나무를 전멸시킨다는 예측도 빗나갔다. 물론 전국적으로 피해가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예상처럼 전멸의 수준은 아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서 가까운 소나무숲에 방제를 하지 않은데도 소나무가 건강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쨌든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며 유용한 곤충들을 몰살시키는 항공방제는 중지해야 한다.



김영준 부산생명기술이사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재고하라

Advertisement for YOKOGAWA, MULTI, MUSASHI measuring instruments. Includes text: '활선상태에서 절연저항을 Multi 누설전류계로 비교측정', 'www.hdj.com', '법 정 공 구 소 방 감 리 장 비 전기 감 리 장 비 건축 감 리 장 비 1·2종 장 비', 'YOKOGAWA, MULTI, MUSASHI 취급점 (주)현대전기계측기'.